

#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

권태호\*

## 1. 머리말

제주도의 무속신화는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으로 크게 삼대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조상신본풀이는 가정의 의례나 곳에서 섬겨지는 신에 대한 내력담으로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도 미미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서사적 전개를 찾아보기 어려워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이다. 여기에서 당신본풀이는 제주도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제주도 토착신화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일반신본풀이는 본토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서사무가가 아울러 전승되고 있어 소재적 원천이 본토의 것과 같은 뿌리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다.<sup>1)</sup>

---

\* 경기대학교 강사

- 1) 장주근은 제주도의 무속신화를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는 제주도의 지명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토착성도 없으며, 내용도 본토의 것과 동일하고 종교적 기반도 상통한다고 하면서 본토에서 형성된 것이 제주도에서 나름의 특성을 갖고 수용된 것이라 한다(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근간; 『서사무가와 강창문학』,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현용준 또한 제주도 무속신화를 마찬가지로 삼분하여 설명하고 있다(현용준, 『무속신화 본풀이연구 서설』,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9~20면).

실상 제주도 큰곳에서 불리는 일반신본풀이 중 <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맹감본풀이>, <세경본풀이> 등은 본토에서 전승되는 무가나 소설, 불경 등과 내용이 상통하는 것이며, 제차를 잃어버린 <세민황제본풀이>, <군웅본풀이> 또한 본토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sup>2)</sup> 제주도에서 이런 다양한 무가가 먼저 선재하고 있다가 폭넓게 본토로 이입되면서 이처럼 비슷한 내용을 지닌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형성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신본풀이들이 제주도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는 그 소재적인 면에서 본토의 것이 제주도로 이입되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시각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본토와 같은 내용을 보이는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들이 단순히 본토의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했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그 소재는 비록 본토의 것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일반신본풀이로 형성되면서는 제주도의 고유한 신화적 성격을 토대로 하여 나름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았나 여겨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토 자료와는 다른 그 독자적 면모를 지니게 하는 요인으로 제주도의 토착적인 신화 형태인 당신본풀이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하

2) 본토의 서사무가와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가 같은 내용을 지닌 자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글은 서대석의 「서사무가연구」(『국문학연구』 8집,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8)와 장주근의 글이 있다(장주근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5. 378~379면). 이외에 강정식의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문학연구』 7집, 우리문화연구회, 1988)에서는 <이공본풀이>의 형성과정을 본토의 자료들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안락국전>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 현용준은 일반신본풀이를 당신본풀이가 성장한 완성형과 같다고 하면서 聖性的인 신화에서 俗性的신화로 넘어가는 단계의 '설화형본풀이'라고 한다(현용준, 같은 글, 27~28면). 이 점은 일단 인정되지만 당신본풀이의 신화적 소재가 제주도 토착적인 것이라면, 일반신본풀이는 다수가 본토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재적 원천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나인 <세경본풀이>이다. <세경본풀이>는 지금까지 여러모로 주목을 받아 오던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찾아지는 농경신과 목축신의 좌정유래담이라는 점과 서사무가로는 특이하게 남녀의 애정담이 중심이 된 장편의 서사시라는 점,<sup>4)</sup> 그리고 여주인공인 자청비의 여성영웅적 면모가 여성신화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sup>5)</sup>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바는 <세경본풀이>와 비슷한 내용의 무가가 본토에도 있으며, 고소설로도 전해진다는 점이다. 함경도의 <문굿>과 고소설 <양산백전>이 바로 그것으로, <세경본풀이>와 이를 대비할 때 남녀주인공의 행위나 성격, 사건의 전개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들이 서로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된 바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도 이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출발한다. 서대석,<sup>6)</sup> 장주근,<sup>7)</sup> 조현희<sup>8)</sup>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세경본풀이>와 본토의 자료가 같은 계통의 서사무가임을 밝히고, 공통점에 입각하여 이들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님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논의의 방향은 다르다. 곧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본토 자료와는 다른 <세경본풀이>만의 독자적인 제주도신화로서의 특징과 면모를 찾아보고, 이런 독자성의 근원을 당신본풀이와 관련지어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4) 진성기는 <세경본풀이> 한 편만으로 『남국의 무속서사시』(정음사, 1980)라는 책을 간행한 바 있다.

5)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집, 민속학회, 1998. 이 외에 <세경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구조주의적 분석방법을 통해 그 신화적 의미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고찰한 김화경의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접근」(『한국학보』 28집, 일지사, 1982 가을)이 있다.

6)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8집,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8.

7) 장주근, 「서사무가와 강창문학」,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농신, 세경본풀이」,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3.

8) 조현희, 「세경본풀이의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세경본풀이〉의 후반부 곧 자청비가 문도령과 하룻밤을 자청비의 방에서 함께 지낸 후 이별하는 데서부터는 동계의 여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성과 독자적 면모가 있다.<sup>9)</sup>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경본풀이〉에서 이처럼 본토 자료와 달리 나타나는 부분은 분명 제주도 신화로서 갖는 그 나름의 독자적 면모라 할 수 있을텐데,<sup>10)</sup> 그렇다면 〈세경본풀이〉의 이런 독자성은 어떤 근원에 기인하는 것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근원을 바로 제주의 토착신화로 여겨지는 당신본풀이의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세경본풀이〉 후반부의 특징적인 면인 정수남의 설정 및 자청비와의 관계, 자청비의 천상무용담 등은 〈송당계본풀이〉와 뚜렷하게 대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세경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세경본풀이〉를 통한 제주도 신화적 특징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미 있었다. 박경신의 “제주도 무속신화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라는 글이 바로 그것으로,<sup>11)</sup> 〈세경본풀이〉에 대한 이본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본토의 〈제석본풀이〉나 〈바리공주〉, 〈동명왕신화〉 등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충실한 이본비교가 이루어졌다는 점, 제주도의 〈세경본풀이〉가 본토의 신화와 상통하면서도 그 나름의 독자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 등을 밝혔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 〈세경본풀이〉와 비교되는 대상 자료들이 본토에서 널리 전승되는 자료이기는

9) 서대석, 같은 글, 106면.

10) 제주민담 ‘자청비이야기’는 자청비가 문도령의 무덤에 들어가고 남은 옷자락이 파리, 모기가 되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세경본풀이〉와 달리 본토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설화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료로는 “자청비”(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59)와 “자청비와 문국성문도령”(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등이 있다.

11)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하지만 <세경본풀이>가 지닌 제주도 신화적 특징을 밝힌다면 오히려 이들 자료보다는 동일한 근원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본토의 무가 및 고소설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때 그 의도했던 바인 제주도 신화적 특징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동계의 여타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경본풀이>만의 변별성을 추출하고, <세경본풀이>가 그렇게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게 된 근원을 제주도의 당신본풀이 특히 <송당계본풀이>와 관련하여 찾아봄으로써 제주도 일반신본풀이가 독자적 면모를 확보하면서 제주도 신화화되는 과정의 한 단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同系 資料와의 대비를 통한 <세경본풀이>의 독자적인 면모와 양상

<세경본풀이>와 같은 계통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자료는 중국의 <梁祝 說話> 또는 元明代의 강창문학인 <祝英台雜劇>, <梁山伯寶卷> 등의 중국 자료<sup>12)</sup>와 고소설 <양산백전>, 함경도의 <문굿>, 제주민담인 <자청비 이야기> 등이다. 이들 작품은 그 핵심적 내용이 남장한 여인과 동문수학하는 남성의 연애담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연구에서 중국의 설화가 우리나라에 이입되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서사무가 및 고소설을 형성했다고 한다. 이런 중국설화의 이입에 따른 작품군의 형성이라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인물의 성격이나 행위, 서사적 전개양상 등이 너무도 일치하고 있어 무리이고, 중국의 <양축설화>가 東晉(317~420) 이래로 시대가 바뀌면서 거듭해서 수십 종의 판본으로 거듭 생산되는 인기설화로 수많은 중국 소수민족들에게까지도 폭넓게 전승되어 왔으며,<sup>13)</sup> 태국에도 <따오 싸른 령>이라는 비슷한 내

12) 중국의 “梁祝故事”를 토대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양상은 『梁祝故事說唱集』(台北：明文書局，1981)에 소개되어 있다.

용의 작품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보아<sup>14)</sup>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도 전해져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계열 작품들의 근간이 되는 것을 중국의 <양축설화> 또는 <양산백보권>에 두고 있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나<sup>15)</sup> 우리나라에 언제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무가와 고소설로 형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중국의 양축설화가 이입되면서 그 영향으로 각기 무가와 고소설이 별도로 생성되었는지 또는 고소설 <양산백전>의 영향을 받아 무가들이 형성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우선 선행연구자들이 중국설화의 이입에 따른 우리의 서사무가 및 고소설이 형성되는 과정을 언급하는 부분부터 간략히 요약해보기로 한다.

- 
- 13) 關德棟의 “중국 漢語 속문학과 주변 민족문학”의 발표에 대한 김현선의 질의에 대한 關德棟의 답변에서 양산백축영대 이야기가 장강을 중심으로 하여 소수민족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한국학연구』 8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6. 397면.
- 14) M. L. Manich Jumsai ; *History of Tai Literature*, Chalemnit Press.(Bangkok), 1973. 79면. 중국에서 전해진 이야기라 하면서 남장한 소녀가 수도원으로 공부하러 가던 소년을 만나 사랑하나 신분 차이 때문에 여자의 부모가 반대하여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의 무덤에는 나비가 날았다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 15) 이수자는 <세경본풀이>가 양축설화의 수용이라는 서대석과 장주근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는 문도령과 함께 기거하며 글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 끝난 뒤 함께 돌아오던 중에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는 대목은 양축설화의 수용이 아닌 원래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후대에 민담에 수용되어 같은 류의 설화나 고소설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단편적이지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이수자, 같은 글, 152~153면). 그런데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근원을 이루는 제주도의 자료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육지로는 어떻게 전해져 폭넓게 무가나 고소설, 설화 등을 이루게 하였는지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른 시기부터 문헌을 비롯해 소수민족들에게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전승되던 중국 자료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 서대석 ; 중국의 <축영대설화>가 이입되면서 고소설 <양산백전>과 함경도의 <문긔>을 형성시켰는데, 중국의 <양축설화>가 각기 <양산백전>과 <문긔>을 형성시켰는지 또는 <양산백전>을 바탕으로 하여 문긔이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제주도의 <세경본풀이>는 뒷부분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주설화 <자청비이야기>가 <축영대설화>와 같아서 이를 매개로 연결시킨다면 <세경본풀이> 또한 <양축설화>의 수용으로 볼 수 있다.<sup>16)</sup>
- \* 장주근 ; 중국의 동진시대 이래로 있어왔던 양축설화가 원대의 <축영대잡극>, 명대의 <양산백포권> 등의 강창문학으로 전개되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고소설 <양산백전>과 함경도무가 <문긔>을 형성시켰다. <양산백전>과 문긔은 형성연대가 막연하여 선후 영향관계를 논할 수 없고, 제주도에는 민담 <자청비이야기>, <세경본풀이>가 있는데, 그 근원을 달리해 전승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의 양산백설화에 근원을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sup>17)</sup>
- \* 조현희 ;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 <문긔>, <자청비이야기> 등이 중국 양축설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들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각기 전승양상에 따른 독자적인 면모일 뿐 별개의 작품은 아니다.<sup>18)</sup>
- \* 정규복 ; <양산백전>은 중국의 양축설화를 토대로 이를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개변이 있었으며, 함경도무가 <문긔>은 중국설화의 영향이기보다는 고소설 <양산백전>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그 근거는 인물 명칭이 중국 것보다 고소설에 상통하는 점, 무녀가 하층이었기에 중국의 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이다.<sup>19)</sup>

16) 서대석, 같은 글, 99~108면.

17)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143~145면.

18) 조현희, 같은 글.

19) 정규복, 『양산백전고』, 『중국연구』 IV집, 한국외대 중국문제연구소, 1979.

이들 선행연구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양축설화가 이입되어 <양산백전>과 <문굿>, 제주민담 <자칭비이야기>, <세경본풀이> 등 같은 계열의 작품들을 형성시켰다.

둘째, <세경본풀이>는 같은 계열의 작품들에 비해 다소 이질적인 면모가 있는데, 그렇다고 별개의 것이거나 독자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중국의 양축설화가 각기 무가 및 소설을 형성시켰는지, 또는 소설로 전해지던 것을 무가가 수용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비록 정구복이 소설의 영향으로 함경도 무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나 그 근거가 미약하다. 그가 들고 있는 명칭의 차이는 ‘축영대’와 ‘추양대’ 정도이고, 무녀가 하층신분이어서 중국에서 전해진 설화나 소설을 소화할 수 없었다면 우리의 문자화된 소설을 소화하지 못할 것임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양축설화가 근간이 되어 형성된 작품군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이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유입되었는가는 아직 해명되지 못했고,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고소설, 무가, 민담의 선후관계 및 영향수수 관계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것이 긴요한 문제이겠지만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바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세경본풀이>가 양축설화에 근원을 둔 동계의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만 우선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같은 근원을 지닌 작품임에도 왜 이처럼 <세경본풀이>는 후반부에서 특히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는가 하는 문제가 이 글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세경본풀이>의 전반부는 <문굿>, <양산백전>, 제주민담 <자칭비>와 인물의 성격, 서사적 내용 및 전개과정이 일치하고 있다. 비록 제주도 자료에서 남녀주인공의 명칭이 문국성문도령과 자칭비라는 이름으로 달리 나타나지만 그 이름만 차이를 보일 뿐 그 성격이나 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



다. 하지만 문도령과 자청비가 자청비의 방에서 함께 유숙한 뒤 정표를 주고고는 이별하는 후반부는 중국의 설화나 보권 등에서는 물론 우리의 동계 여타 자료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문굿>이나 <자청비이야기>에서는 여주인공이 신행길에 상사병으로 죽은 남자의 무덤 곁을 지나다가 갈라진 무덤 사이로 들어가고 다시 합쳐진 무덤 사이에 남겨진 옷자락이 나비나 파리, 모기가 된다는 형태로 종결되고, <양산백전>에서는 좀더 발전하여 군담적 성격을 가미한 채 남녀주인공이 환생하여 부귀공명을 누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물론 이런 <양산백전>의 후반부는 중국 <양산백보권>의 영향이며,<sup>20)</sup> 군담적 요소의 가미는 당대 사람들이 군담류를 좋아했기 때문에 첨가된 것일 뿐이다.<sup>21)</sup> 곧 <세경본풀이>를 제외한 동계의 여타 자료들은 중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독자적으로 생성된 양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세경본풀이>의 후반부는 다르다. 정수남이라는 목축신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 중요하게 설정되어 문도령 자청비와 더불어 삼각관계의 인물구도를 이루고, 자청비는 남편을 탐색하는 천상여행을 하며, 또한 하늘나라에서는 세번을 막는 여성 영웅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자청비와 정수남이 각기 농경신과 목축신의 신직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서 신격이 되는 것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이런 <세경본풀이>의 후반부는 동계의 여타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 내용을 지닌 것으로, 동계의 소재적 원천이 제주도로 유입되어 일반신본풀이화하면서 제주도 신화적 성격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형성 결합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경본풀이>가 지니는 제주도 신화적 성격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후반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

20) 장주근, 같은 글;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안동준, 「적강형 애정소설의 형성과 변모」, 『문학연구』 7집, 우리문학연구회, 1988. 127면. 이들 글에서 <양산백전>의 후반부가 독자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 <양산백보권>의 영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21) 서대석, 같은 글, 248~249면.

어저야 할 것이다. 우선 <세경본풀이>의 후반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도령을 기다리다가 정수남의 피임에 빠지고, 겁간하려는 정수남을 죽여 집에서 쫓겨남
2. 청태국 마귀할멈의 양육을 받다가 문도령과 만날 기회를 놓치고는 쫓겨나 중이 됨
3. 옥황선녀를 만나 승천한 뒤 문도령과 재회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머느리로 인정받음
4. 하늘나라의 세번을 막는데 자원해서 출전하여 공을 세우고 상을 받음
5. 서천꽃밭에서 꽃감관의 사위가 되고, 환생꽃으로 죽은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려냄
6. 하늘나라의 변란을 막은 공으로(첩과의 갈등으로) 중세경의 신직과 오곡의 종자를 받아 하강하여 세경신이 됨
7. 정수남은 하세경 목축신이 됨<sup>22)</sup>

이런 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가. 정수남이라는 인물의 설정과 자청비와의 관계
- 나. 자청비의 남편탐색담
- 다. 자청비의 천상무용담
- 라. 정수남을 살리기 위한 자청비의 서천꽃밭 여행
- 마. 중세경으로 세경신(농경신)이 되는 자청비와 하세경으로 목축신이 되는 정수남

가)의 정수남이라는 인물의 설정은 <세경본풀이>가 지니는 가장 독자적이고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동계의 작품들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남

---

22) 세경본풀이에 대한 이본비교는 박경신에 의해 충실히 이루어졌기에 그의 이본 비교표를 토대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박경신, 같은 글).

녀주인공에 한정된다. 비록 <양산백전>에서 추양대의 남편으로 심생이 설정되어 있어 <세경본풀이>의 정수남과 같은 존재로 발전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부차적인 인물이고 양산백과 추양대의 사랑을 더욱 극적으로 맺어지게 하는 인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경본풀이>의 정수남의 설정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수남은 자청비가 문도령과 헤어진 후 갑자기 끼어들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자청비와 함께 신직을 부여받는 존재이고, 자청비의 배우자로서의 면모도 다소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정수남의 존재에 대해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정수남이 신으로 모셔지게 된 까닭도 악신도 대접해야 한다거나<sup>23)</sup> 아예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비중있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은 특히 자청비에게 있어 각별한 존재이다. 먼저 정수남은 자청비와 문도령 사이에 개입하여 삼각관계를 만드는 인물이다. 문도령이 하강하는 곳을 안다는 것을 빌미삼아 자청비를 유인해서 겁탈하려 한다. 곧 강제적인 사랑의 실현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경놀이의 내용과도 상통하는 양상이기도 해서 흥미롭다. 세경놀이는 시집살이가 싫어 도망하던 여인이 들판에 앉아 소피를 보다가 건달총각에게 겁탈을 당하고 거기에서 낳은 자식이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이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과 자청비 사이의 겁탈 사건과 흡사하며, 이 결과로 낳은 자식이 풍작을 거둔다는 점에서도 자청비가 농경풍요신임을 감안한다면 상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이고 살린다고 해서 부모에 의해 추방된다. 곧 자청비가 집에서 추방되어 고난을 겪게 되는 까닭이 바로 정수남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자청비는 문도령과 결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수남에 대한 위함은 각별하다. 죽은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을 여

23) 박경신, 같은 글, 297~298면.

행해서 환생꽃을 가져온다. 물론 각편에 따라 정수남과 죽은 남편을 모두 살려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남편을 되살리는 대목은 결락되어 있어도 정수남을 재생시키는 부분은 모든 각편에서 공통되게 나타난다. 그리고 <안사인본>을 비롯한 몇몇 자료에서는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오기 위해 부엉이를 잡는데, 이 부엉이의 영혼이 곧 정수남의 환생으로 나타나는 것도 흥미롭다. 자청비는 지붕에 올라 옷을 벗고는 “정수남아, 정수남아, 魂情이 잊건 부엉이 몸으로 환생허영 원진 나 젓가심 우의나 올라앉아 보라”고<sup>24)</sup> 하며 정수남의 영혼을 부르자 부엉이가 자청비의 가슴에 와서 앉았다고 한다. 이것은 자청비와 정수남의 性的 결합을 상징하는 화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이 단순한 하층의 종이기보다는 자청비에 대한 남녀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배우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한편 정수남이 <세경본풀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은 말미에 자청비가 중세경으로 농경신의 신직을 부여받듯이 하세경으로 목축신이라는 신직을 부여받는다는 데서 다시 확인된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신직이 부여될 리 만무하다. 아울러 자청비의 결연자인 문도령은 상세경이 되었지만 그 기능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더 나아가 지상에서 자청비와 함께 신직을 수행하는 것은 하세경인 목축신 정수남이다. 문도령은 천상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정수남과 자청비의 관계를 농경신과 목축신의 결합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수남은 <세경본풀이>의 특히 후반부에서 부차적인 인물에 불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농경신인 자청비의 배우자 성격을 지닌 존재로 여겨진다.

나는 자청비가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치면서 문도령을 찾아가 아내로 인

24) 현웅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347면.

정을 받는 것으로, 이런 자청비의 남편탐색담 또한 동계의 여타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 면모이다. <양산백전>에서도 양산백과 추양대가 다시 환생하여 사랑의 결실을 맺지만, 이는 天定에 따른 것이고 초월자인 태을성인이 이들 부탁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비현실적 세계의 막연한 힘의 개입으로 이들을 결합시키는 형태이지만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실이라는 점에서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제주도 여성의 강한 생활력과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신화에 반영된 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한편 이런 나는 '남편탐색담'의 형식을 그대로 따는 것으로 <세경본풀이> 또는 제주도신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화소는 아니다.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는 아내로 인정받게 되는 형의 이야기는 Stith Thompson이 'Type425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라고 해서 분류하고 있듯이 <큐피트와 푸시케>로 대표되는 많은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서 전해진다.<sup>26)</sup> 우리의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도 이런 형태를 보이는 대표적인 자료로,<sup>27)</sup> 구렁이신랑과 결혼한 여인이 금기를 어겨 남편을 잃고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힘난한 여행 끝에 결국 남편을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문도령을 찾아가는 것은 이런 '남편탐색담'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세경본풀이>에 왜 이런 남편탐색담이 결부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제주도 여성의 적극적이고 강한 생활력이 반영된 한 형태로서 전개된 것일 수도 있겠고,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에서 구렁이신랑의 성격이 수신적 존재임<sup>28)</sup> 감안한다

25)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박경신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박경신, 같은 글, 299~300면).

26) Stith Thompson, 윤승준 외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27) 우리나라의 구렁덩덩신선비설화를 큐피트 사이키설화와 대비한 연구로는 임석재의 「구렁덩덩 시선비설화와 큐피트 사이키설화의 대비」(『한국 일본의 설화연구』, 인하대출판부, 1987)와 서대석의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이 있다.

면 농경풍요신인 자청비가 농경에 필수적인 물을 관장하는 신격을 찾아가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켰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여하튼 나는 동계 자료들과 비교해서는 독자적 면모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제주도만의 고유한 신화적 특징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의 자청비의 천상무용담은 농경신을 부여받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천자국에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가 자원해서 출정해 적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오곡을 얻어 농경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소설 <양산백전>에서 다시 환생한 양산백이 과거급제 후 도원수가 되어 오랑캐를 물리치는 부분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작품에서 지니는 의미는 판이하다. <양산백전>에서 양산백이 서달을 물리치는 대목은 내용의 전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변란을 물리침으로써 양산백과 추양대가 부귀영화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산백이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 겸 표기장군에 오르게 되기는 하지만 오랑캐의 변란을 막은 공으로 해서 그의 입지나 행복한 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산백전>에서 양산백의 출정은 남성의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여지고, 그 의미도 양산백이 단순히 탁월한 장수적 역할을 지닌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데 있다. 곧 이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한 과정일 뿐 내용의 전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흥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당대 사람들이 즐겼던 군담적 요소를 가미한 것에 불과하다.<sup>28)</sup> 반면 <세경본풀이>에서의 자청비의 천상무용담은 신직을 획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런 양상은 제주도 <송당계본풀이>에서 子神이 강남천자국의 무용담을 겪은 후 신직을 부여받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어서

28) 서대석, 같은 글, 199~202면.

29) 서대석은 <양산백전>이 작품구조나 주제면에서 군담이 개입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찾지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은 군담이 독자 계층의 흥미소로 작용하면서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같은 책, 248~249면).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세경본풀이>에서는 <양산백전>의 양산백에 대응되는 인물인 문도령이 출정하여 세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청비가 여성영웅으로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이 또한 제주 여성의 적극적인 생활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자청비가 천상을 여행하여 배우자를 얻고 탁월한 장수적 역량을 발휘하여 공을 세우고 신직을 부여받아 귀환해서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특히 굳이 여성인 자청비가 문도령을 대신해 이런 세변을 막는다고 설정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인데, 이것은 <송당계본풀이>의 子神의 해중무용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송당계본풀이>에서 보면 子神이 버림을 받고는 용왕국을 여행해서 셋째 딸을 배우자로 얻고, 강남천자국의 세변을 막아주고는 그 공을 바탕으로 제주도로 귀환해 당신이 되는 과정을 겪는데 자청비의 여행 및 무용담은 이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는 <송당계본풀이>에서 보이는 子神의 무용담의 변형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다.

한편 라의 죽은 이를 되살리기 위한 서천꽃밭으로의 여행은 특히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이다. 서천꽃밭은 여기서 다루는 <세경본풀이>를 비롯해 <이공본풀이>와 <문전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인간의 生死를 관장한다고 여겨지는 신화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sup>30)</sup>

<세경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의 여행은 자청비가 정수남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는 거짓사위가 되어 도환생꽃을 가져와 정수남을 되살리게 된다. 이렇게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와 죽은 이를 되살리는 화소는 <이공본풀이>와 <문전본풀이>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되살린 인물이 나중에 신격이 되거나 신의 세계에 편입

30)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88~191면.

되는 양상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중요한 신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런 공간 관념이 제주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본토에서는 물론 서천꽃밭이라는 동일한 공간이 설정되어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리공주>에서 볼 수 있는 서천서역국과 같은 공간이 있어 험로를 지나고 물을 건너는 도보여행을 통해 도달하게 되며, 이 곳에 있는 약수나 꽃이 죽은 사람을 재생시킨다는 의식도 마찬가지로 있음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천꽃밭>으로의 여행은 제주도 신화적 특징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곤란하며, 제주도에 특히 이런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화적 공간인 서천꽃밭에 대한 관념이 특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자청비가 세변을 막는데 사용하는 수레멜망악심꽃이라든가 <이공본>의 웃음꽃, 싸움꽃 등 다양한 꽃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곳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등은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서천꽃밭에 대한 관념이 잘 발달되어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곳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관장하는 곳임은 물론 더 나아가 악한 인물을 징치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식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서천꽃밭>은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서천꽃밭이라는 신화적 공간관념에 대한 인식이 토대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정수남과 문도령을 죽음으로부터 재생시키는 것은 <세경본풀이>가 지닌 농경의 풍요성과도 무관한 설정은 아닌 듯 보인다. 서천꽃밭의 의식적 기저에는 식물의 생장과 인간의 생사를 동일시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재생시키는 모습을 통해 식물의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세경본풀이>가 농경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농작물의 풍요에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신화에서의 죽음으로부터의 재생 과정은 가을에 지는 식물들이 봄에 다시금 재생하는 양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풍요기원 심리의 반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1)</sup>

마지막으로 마는 자청비와 정수님이 각기 신격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이들이 신격으로 큰곳에서 모셔지게 까닭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세경본풀이>가 무속신화이기에 어떤 직능을 지닌 신격을 획득하는가 하는 설명이 결말부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일한 소재를 원천으로 하는 함경도의 <문굿>같은 경우는 무속신화임에도 그 신격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다만 망목굿에서 이런 <문굿>이 길을 닦는데 소용된다는 것만 분명할 뿐 양산백 추양대가 어떤 직능을 수행하는 신격인가는 막연하다. 그리고 이렇게 망목굿에서 쓰이는 것은 결말부의 양산백과 추양대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는 무덤이 합쳐지며 종결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곧 함경도의 <문굿>은 망자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반면 제주도의 <세경본풀이>는 농경신과 목축신의 좌정유래담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분명 <문굿> 내용과 같은 전반부 때문이기보다는 후반부 곧 정수님의 마소를 부리고 말머리고사를 지내게 하는 모습이라든가 자청비가 변란을 평정하고는 오곡을 청하여 받고는 지상으로 내려오는 화소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정수님이 농경신과 목축신을 차지하는 양상은 분명 전적으로 제주도 나름의 신화적 관념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세경본풀이>의 독자적 면모를 보이는 후반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대체로 제주도 고유의 신화적 관념이 중심이 되고 있고, 나와 래처럼 본토와 공통되게 보이는 신화소가 있더라도 대체로 제주도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가 제주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래에서 서천꽃밭의 도환생꽃으로 죽은 이를 살리는 과정 등은 이런 공간관념이 특히 제주도에서 특히 잘 발달된 데 따

31) 인간의 삶과 죽음이 농작물의 풍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Osiris숭배에서도 확인되며, 大林太良도 『신화학입문』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大林太良, 권태효 외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126~127면).

른 개입이라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듯 본토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소 또한 제주도 나름의 신화적인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이외의 전형적인 제주도만의 의식의 소산으로 보이는 가, 다, 마의 면모가 제주도 토착적인 신화 형태인 당신본풀이 특히 제주도 당신화의 祖宗으로 여겨지는 <송당계본풀이>에 밀접히 관련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세경본풀이>의 제주도 토착신화적 면모와 <松堂系本풀이>와의 관련양상

<세경본풀이>의 독자적인 면모는 자청비가 문도령과 이별한 데서부터 전개되는 후반부이며, 그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화소들에 대해서는 이미 前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후반부의 핵심적인 사건전개가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층위로 전개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경본풀이>의 후반부는 자청비가 떠나버린 문도령을 찾아 온갖 고난을 겪으며 천상여행을 하는 남편탐색담 형태로 전개되는 한 축이 있다. 이것은 전반부의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서사의 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정수남이라는 자청비의 종을 설정하여 자청비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어 서사의 또 다른 한 축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후반부의 양상에서 의문되는 점은 전반부의 서사적 전개를 이어간다고 했을 때 자청비의 남편탐색담만으로는 단선적 전개가 훨씬 자연스러웠을텐데 왜 굳이 자청비와 정수남이라는 새로운 축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이런 새로운 축이 마련됨으로써 오히려 내용의 전

개가 매끄럽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수남은 자청비가 문도령을 찾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도령을 만나게 해준다는 핑계로 자청비를 겁간하려 하고 말머리 고사를 지내는 등 정수남과 자청비 사이의 일이 장황하게 본풀이 후반부의 첫머리에 개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청비는 정수남을 되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을 여행하여 환생꽃을 가져다가 그를 재생시키는데, 이렇게 어렵사리 되살려 놓은 정수남은 그 이후 부분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다가 다시 끝부분에 신직을 부여받는 데서 갑자기 등장하여 자청비와 함께 지상에서 신격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렇듯 자청비와 정수남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자청비의 남편탐색담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축에 조화롭게 결합된다기보다는 다소 이질적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정수남이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축을 만든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송당계본풀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해야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경본풀이>의 후반부는 <송당계본풀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관련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세경본풀이>의 남신인 정수남과 여신인 자청비의 관계는 그 인물성격이나 이들의 결합양상, 위계성 등 다각도에서 <송당계본풀이>의 부모신인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에 밀접하게 대응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 구체적인 관련양상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남신의 성격이다. 정수남과 소로소천국의 성격을 대비시켜보면 다 같이 肉食性과 大食性을 지닌 狩獵牧畜神의 성격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정수남은 소와 말 아홉 마리에 길마를 지워 나무하러 갔다가 잠을 자는 사이 마소를 다 죽게 만들고는 그 죽은 마소의 가죽을 벗겨 불에 구워 먹는다. 마소 아홉 마리를 한꺼번에 먹는 대식성과 아울러 육식성을 지닌 존재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그가 목축신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후에

하세경으로 목축신이 되는 데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그보다 앞서 상전인 자청비를 말에 태워 문도령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대목에서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 술 아홉 동이, 돼지머리를 차려놓고 고생하는 말을 위해 말머리고사를 지내도록 하는데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을 다루는 능력을 받드는 것이며 아울러 말을 관장하는 牧畜神에 대한 대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많은 양의 제물을 마부만 먹어야 한다며 혼자 먹어 치우는 데서도 그의 대식성은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송당계본풀이>에서의 소로소천국은 원래 사냥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존재였다. 이런 성격은 백주또를 만나면서 소를 이용해 농사짓는 형태로 변형된다. 사냥을 주업으로 삼아 육식을 하던 데서 가축을 기르고 이용하는 능력을 획득한 것이며, 더 나아가 농경으로의 생업의 변화를 도모한다. 소천국 또한 대식성을 지닌다. 백주또는 일하는 소천국을 위해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를 마련한다. 그가 대식성을 지녔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심을 지나가던 중이 다 먹어 치우자 소천국은 밭갈던 소를 불을 피워 잡아 먹고 다시 이웃의 소까지 잡아먹는다. 본질적으로 지녔던 육식성으로의 회귀라 할 수 있으며, 수렵목축신적 성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수남과 소로소천국은 신의 성격 면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32)</sup>

둘째, 여신의 성격 또한 일치한다. 자청비와 백주또는 모두 농경풍요신적 성격이 뚜렷한 존재이다. <세경본>의 자청비는 하늘 옥황에서 세면을 막아 공을 세운 뒤 오곡의 씨앗을 얻어 이 세상으로 내려와 중세경으로 농신이 된다. 그리고는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는 풍년을 들게 해주고 악한 사

32) 장주근은 <송당계본풀이>를 비롯한 제주도 당신화에서 남신이 육식성을 지니고 여신이 米食性을 지니며, 이들이 결합했다가 식성 때문에 별거하게 되는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바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당신화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되고 있음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의미와 구조」, 『한국신화의 민족학적 연구』, 집문당, 1995).

탐에게는 흉년을 내리는 농경풍요신으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송당계 본풀이의 백주또 또한 오곡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농경신적 성격을 뚜렷하게 지닌 존재이다. 수렵목축신적 성격의 소천국에게 농사를 짓도록 권한다. 많은 식구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서 소천국에게 농사를 짓게 한다. 또한 소천국이 농사짓던 소를 잡아먹자 소도독놈, 말도독놈이라며 살림분산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의 육식성에 대한 불만이고 미식성을 갖지 못한데 대한 식성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별거라 할 수 있다. 백주또는 미식성의 농경신적 성격을 지닌 존재이다. 농경의 풍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 남편에게 권하는 것은 분명 농경풍요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며, 육식성을 기피하면서 祭物로 미식성의 음식을 받는 것에서도 농경신적 성격을 알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자청비와 백주또는 다 같이 농경신적 성격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상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들 육식성·목축신의 남신과 농경풍요신인 여신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비록 <세경본풀이>에서 직접적인 결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정수남이 자청비를 겁탈하려는 모습, 그리고 천상에서 신직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정수남과 함께 신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남녀신의 결합적 성격을 분명히 지닌다. 또한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을 여행하는 과정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상전과 종의 신분적 상하관계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아주 각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를 이렇게 남녀신의 결합으로 파악했을 때 이것은 육식성의 소천국과 미식성의 백주또가 결연하는 양상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수남과 자청비의 결합이 온전하지 못하고 겁간하는 형태로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송당계본풀이>에서 이런 성격의 남녀신이 결연했다가 서로 헤어지는 대목과도 상통

33)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201면.

하는 바가 없지 않다. 소천국은 식성 때문에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당하고 있어, 자청비가 정수남을 거부하는 양상에 대응된다는 것이다.

넷째, 농경신이 목축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고관념이다. <세경본풀이>에서 농경신인 자청비와 목축신인 정수남의 관계는 상전과 하인의 관계로 나타난다. 하지만 단순히 신분적 상하관계를 나타낸 데 있다기보다는 목축신보다는 농경신이 우위에 있다는 사고의 신화적 반영으로 보인다. 이 점은 후에 신직을 부여받을 때 농경신인 자청비는 중세경이 되고, 목축신인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농경신이 우위의 신격임을 분명히 하는데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처럼 농경신이 목축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관념은 <송당계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당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다. <송당계본풀이>에서 보면 백주또는 소천국에게 많은 자식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권한다. 수렵보다는 농경이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마땅한 생활방식이라는 것이며, 우위에 있다는 관념의 소산이다. 뿐만 아니라 소천국이 두 마리의 소를 잡아먹었을 때 이것을 계기로 살림분산을 요구한다. 비록 이웃소를 도적질한 탓이라고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그보다는 육식성의 생활 자체를 부정하게 여긴 때문이다. 제주도 당신화에서는 식성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통은 소천국과 백주또처럼 부모대의 갈등에서 미식성의 여신이 육식성의 남신과 갈라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식성을 지닌 子神이 돼지발자육에 고인 물을 먹다 돼지털이 코를 찢러 또는 돼지털을 그을린 것을 냄새맡고 동경내가 난다고 하여 육식성의 여신을 귀양정배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sup>34)</sup> 이런 식성의 갈등에서 항상 우위에 있는 쪽은 미식성을 지닌 쪽이고, 육식성의 신격은 다소 부정하다는 의식도 찾아볼 수 있다.<sup>35)</sup> 여허튼 송당본풀이에서 농경신적 성격의 백주또가 수렵목

34) 장주근, 같은 글, 140~141면. ; 권태효, 「건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68~72면.

35) 제주도 당신화나 당제에서 육식성의 신격이 하위신이고 米食性의 신격이 상위신이라

축신적 성격의 소천국보다 긍정적이고 더 우위에 있는 양상은 분명하고, 이 점이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정수남에 대한 우위와 다른 양상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자청비와 정수남의 성격과 관계는 <송당계본풀이>의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에 밀접하게 대응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세경본풀이>의 후반부가 <송당계본풀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거나 적어도 그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에 가능한 것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세경본풀이>에서 동계 여타 자료와 비교해 독자적 면모를 보이는 후반부 첫머리가<sup>36)</sup> <송당계본풀이>의 부모신의 결연 및 별거까지의 과정과 밀접하게 대응되고 합치된다는 점만 분명히 지적하기로 한다. 그 관련양상이 단지 이것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송당계본풀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세경본풀이>의 후반부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청비와 정수남 사이의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자청비의 천상여행 및 그 결과가 송당계 본풀이에서 子神이 추방되어 펼치게 되는 여행담과 흡사한 구조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나 <송당계본풀이>에서 子神의 여행담은 공통적으로 ①부모로부터의 버림-②이계 여행을 통한 배우자 획득-③변란을 막는 무용담-④귀환하여 신격으로 좌정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관련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로부터의 버림 부분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천상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부모의 버림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흥미롭다. 비

---

는 위계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현용준, 같은 책, 203면; 진성기, 『남국의 무속』, 형설출판사, 1987).

36) 박경신은 여러 이본을 대조하면서 강일생본에서는 정수남을 자청비가 죽이고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와 되살리는 부분이 뒤로 가 있지만 원래의 배열순서는 다른 이본들과 마찬가지로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인 뒤 바로 되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박경신, 같은 글, 291면). 곧 정수남은 후반부 첫머리에 자청비와 함께 사건을 전개하고는 사라졌다가 끝에 다시금 출현해 신직을 부여받는다.

록 추방되는 이유가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을 죽인 때문으로 되어 있어 불효한 죄 불경한 죄 때문에 쫓겨나는 <송당계본풀이>의 子神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계로의 여행 계기가 부모의 버림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뚜렷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찾아가는 대목은 굳이 부모의 버림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설정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실제로 구렁덩덩신선비설화와 같은 남편탐색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남편을 찾아가게 된다. 그럼에도 이처럼 남편탐색의 여행 계기를 부모의 추방 때문으로 설정한 데는 <송당계본풀이>의 子神의 여행담 구조가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이계여행을 통한 배우자 획득의 과정이 이어진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천상계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마귀할멈의 양육을 받다가 쫓겨나 중이 되고, 물 뜨러 온 옥황의 선녀들을 만나 하늘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이계를 여행하는데 있어 매개자 또는 초월자의 도움을 얻는 것은 이계여행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천상계에 올라가서는 문도령의 방에서 숨어지내다가 시어머니가 부과한 백탄 숯불 위의 칼선 다리를 통과하는 난제를 해결하고는 며느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양상은 분명 <송당계본풀이>에서 子神의 용궁을 여행해 배우자를 얻는 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계에 있으며 여행을 통해 배우자를 획득한다는 점, 그리고 <송당계본풀이>에서 子神이 용왕국 상나무가지에서 풍운조화를 일으켜 그의 존재를 확인시키듯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확인시킨 뒤 배우자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여행의 동기가 되고, 그 여행목적 또는 성과가 배우자를 얻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확인시켜준 뒤 며느리나 사위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자를 획득한 뒤에는 자청비와 子神의 영웅무용담이 다 같이 펼쳐진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천자국에 일어난 세번 또는 문선왕



과 다른나라 왕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 자원하여 출정한다. 赤松·秋葉이 채록한 자료같은<sup>37)</sup> 경우는 <송당계본풀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대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일어난 난리를 평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변란이 생기고 이 변란을 여행자가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평정하는 양상이 공통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경본풀이>에서는 부부 중 문도령이 아닌 여성인 자청비가 출정하여 영웅무용담을 전개하게 된다는 점이다. <양산백전>에서 양산백이 출정하여 서달의 난을 평정하는 것이라든가 <송당계본풀이>에서 문곡성 또는 피너깃도가 용왕국 따님아기와 결혼 후 함께 강남천자국으로 가서 목이 여러 개 달린 장수들을 차례로 물리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영웅무용담은 부부 중 남신의 역할인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자청비의 몫으로 영웅무용담을 배정한 것은 자청비가 여행의 주체이고 자청비가 신직을 부여받는 존재라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영웅무용담은 자청비가 신직을 획득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자청비는 그 결과로 오곡을 얻고 지상으로 귀환하여 중세경인 농경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송당계본풀이>의 子神이 동일한 무용담을 펼친 후 제주도로 돌아와 堂神이 되는 양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청비의 천상무용담은 <송당계본풀이>의 子神이 펼치는 무용담의 변형일 가능성이 크다. 子神의 역할을 자청비가 하게 되면서 여성임에도 영웅무용담을 펼치게 되고 이 결과로 신직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경본풀이>나 <송당계본풀이>는 모두 여행자가 제주도로 귀환하여 신으로 좌정해 신직을 수행하는 형태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제주도의 한 쪽 땅을 떼어달라고 청하거나 떼어주는 천자국의 땅을 거절하고 오곡종자를 청하여 받아 제주도로 귀환한다. 이런 양상은 <송당계본풀이>에서 변란을 막은 子神의 모습에서도 동일하

37)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상)』, 동문선, 1991.

게 나타난다. 천자가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떼어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본국인 제주도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양자 모두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고 제주도로 귀환하여 신격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들이 신직을 부여받고 제주도로 돌아와서 신직을 수행하는 모습에서도 일치점이 보여진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맡기는데 가서 점심을 얻어먹으라고 해놓고 푸대접을 하는 쪽에는 농사를 망치게 하고 정성껏 대접한 쪽에는 풍년을 내려준다. 또한 <송당계본풀이>에서는 子神이 堂神으로 좌정하여 대접하려 오는 자가 없자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에게 풍운조화를 내려 대접을 받게 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끝부분에 농신으로서 또는 당신으로서 신앙민들에게 그 영험함을 구체적으로 인지시키고 그에 따른 신앙민들이 제를 지내며 숭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세경본풀이>에는 백중이면 말머리고사를 지내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백중일이 중요한 堂祭日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의 당제는 신과세제, 영등굿, 백중제(또는 마불림제), 시만국대제 등 일년에 네 번을 정기적으로 지냈었는데,<sup>38)</sup> 이런 중요한 당제의 제일이 구체적으로 <세경본풀이>와 관련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경본풀이>가 당신화 및 당제와 친연성이 있는 일반신본풀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세경본풀이>의 말미에서 정수남이 다시금 출현해 신직을 부여받는 모습은 <송당계본풀이>에서 子神이 귀환해 당신으로 좌정할 때 백주또와 소천국이 다시 등장하여 子神과 함께 당신이 되는 양상에 그대로 부합된다. 후반부 첫머리의 정수남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정수남과 자청비의 관계는 <송당계본풀이>의 소천국과 백주또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다고 했다. 이런 정수남이 자청비의 천상계여행 동안은 사라졌다가 끝부분에 다시 나타나 목축신이 된다. 그런데 <송당계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신인

38) 현용준, 같은 책, 240~243면.

소천국과 백주또가 자신의 여행담 동안은 등장하지 않다가 자신이 제주도로 돌아와 당신이 되는 끝부분에 와서 다시 출현해 당신으로 좌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상의 관련양상을 통해 볼 때 앞서 의문으로 제기했던 <세경본풀이> 후반부 첫머리가 전반부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조화롭지 못함에도 굳이 정수남을 설정하여 자칭비와 정수남의 새로운 이야기축을 마련한 까닭과 중요하게 등장하던 정수남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끝부분에 다시 등장해 신직을 부여받는 까닭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곧 <세경본풀이> 후반부는 <송당계본풀이>의 인물 설정이나 그 성격, 사건의 전개양상, 짜임새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세경본풀이>가 비록 외래적 소재 원천을 수용하여 전반부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그 기반에는 토착적 당신본풀이인 <송당계본풀이>가 있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이런 밀접한 관련성 및 대응양상을 보이는 독자적인 면모의 본풀이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굳이 소천국의 성격을 지닌 정수남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 정수남이 재생했다가 사라진 뒤 끝에 다시금 출현시켜 신직을 부여받도록 장치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곧 이미 신격을 부여받을 존재나 신직의 성격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었던 데서 본풀이 내용들이 가닥을 잡아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양자의 관련양상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경본풀이>와 <송당계본풀이>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놓고 비교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세경본풀이>와 <송당계본풀이>의 관련성은 B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개의 A부분은 동계의 여타 자료와 같이 양축설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송당계본풀이>에서 또는 여타 당신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B부터이다. 여기서부터 <세경본풀이>가 제주도신화로서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개의 B와 내의 B가 남녀신의 성격이나 그 관계 등이 일치하는 양상이 뚜렷하여 앞서 이미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A	B	C	D
가)세경본 풀이	자청비와 문도령 의 사랑(동계 여 타 자료와 동일 부분)	자청비와 정 수남 사이의 사건	자청비의 천상여행담 및 무용담	자청비 농경신으 로 좌정(정수남 다시 출현해 목 축신으로 좌정)
나)송당계 본풀이		백주또와 소 로소천국의 결연 및 별거	子神의 용 왕국여행 및 강남천 자국의 무 용담	子神의 당신 좌 정(백주또와 소천 국 다시 출현해 당신으로 좌정)

가의 A-B-C로 전개되는 양상에서 굳이 B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었다. A에서 C로 바로 전이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사건 전개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을텐데도 굳이 가)에서 B부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인물의 성격이나 관계 등이 내)의 B부분에 밀접하게 대응되고 있음을 볼 때 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며 사건전개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내)와의 B부분에서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한 채 가)의 전개양상을 살펴본다면 가)의 C부분에서 자청비가 천상여행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내)의 B부분과 관련지어 따져본다면 백주또에 해당하는 신격의 여행담이 펼쳐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기에 이것을 관련짓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는 A부분이라는 본질적인 굴레를 지니고 있다. 남장한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이라는 동계 여타 자료와 동일한 소재적 원천을 가져와 이미 전반부를 채우고 있기에, 문도령과 자청비의 관계를 인정한 채 C를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내)의 子神 대신 母神에 해당하는 자청비가 남편을 찾아 천상계로 여행하는 변형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이렇게 子神 대신 母神格인 자청비가 여행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그 전개양상이나 행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계를 여행해서는 배우자를 얻고 영웅무용담도 그대로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D부분에서 신직을 부여받고 돌아와

서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는데, 나에서는 부모들이 죽어서 子神과 함께 堂神으로 좌정하는 반면 가에서는 母神格인 자청비가 이미 子神의 역할까지도 동시에 수행하기에 정수남만이 끝부분에 다시 등장해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곧 정수남이 <송당계본풀이>의 父神인 소로소천국에 해당되기에 이후에 펼쳐지는 子神의 해중여행담과 무용담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자청비의 남편탐색담과 천상무용담에서는 사라졌다가 신격으로 좌정하는 대목에서 소로소천국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등장해 목축신으로 좌정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경본풀이>의 동계 여타 자료와는 다른 독자적 면모를 보이는 후반부는 <송당계본풀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래적인 소재 원천을 받아들인 한계 때문에 그것에 맞게 문도령과 자청비의 사랑을 이루는 중심축을 설정하여 정수남을 끼어들게 하고 子神의 여행담 대신에 자청비가 남편을 찾는 천상여행을 펼치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 본래적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후반부 첫머리에 갑자기 등장한 정수남과 자청비의 관계는 <송당계본풀이>의 父神 母神에 그대로 대응되고, 다음으로 추방된 子神이 펼치는 용궁여행 및 무용담은 자청비가 다시금 딸의 입장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추방되어 남편을 찾는 여행을 하는 형태로 변형된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여행 및 무용담 후의 신격으로의 좌정 부분에서도 소로소천국과 백주또가 끝에 다시금 나타나 당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수남이 출현하여 신직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곧 남 녀신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사건전개 양상, 짜임새 등 <세경본풀이>의 후반부는 <송당계본풀이>에 그대로 부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신본풀이인 <세경본풀이>가 영향을 주어 제주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당신본풀이인 <송당계본풀이>를 형성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세경본풀이>는 <송당계본풀이>를 토대로 외래적인 소재를 받아들여 독자적이고 흥미로운 나름의 일반신본풀이를 창출해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 <세경본풀이>와 <송당계본풀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세경본풀

이>의 동계 여타 자료와는 다른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는 후반부가 <송당계본풀이>를 직접적인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을 것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경본풀이>의 형성에 있어 <송당계본풀이>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가 서로 밀접한 상관성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신본풀이의 형성에 당신본풀이가 직접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신본풀이가 당신본풀이와는 그 성격이나 기능, 용도 등에 있어 선명히 구분되고 동시에 그 시원이나 발생면에서도 근본이 다른 별개이며, 다만 당신본풀이만이 지명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잘 반영한 제주도 토착의 신화형태로 여겨졌었다.<sup>39)</sup> 그리고 혹 관련이 있다는 언급이 있더라도 당신화 중 크게 성장한 설화형이 외형상 일반신본풀이에 비견된다고 하는 정도였다.<sup>40)</sup> 그러나 비록 아직까지는 이 글을 통해 밝혀진 <세경본풀이>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일반신본풀이의 형성에 당신본풀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토대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겠다. 곧 제주도 무속신화의 근간은 토착신화 형태인 당신신화이고, <세경본풀이>는 이것을 바탕으로 외래적 소재 원천을 적절히 소화하면서 나름의 일반신본풀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의 당신본풀이가 기원형-기본형-성장형-완성형,<sup>41)</sup> 또는 태동형-기원형-기본형-성장형-완성형-설화형으로<sup>42)</sup>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가 이미 있었는데, 당신본풀이인 <송당계본풀이>가 직

39) 장주근, 같은 글, 346~347면.

40) 현용준, 같은 글, 37~38면.

41) 장주근, 같은 글, 131~134면.

42) 현용준, 같은 글, 28~39면.

접적인 기반이 되어 <세경본풀이>가 형성되었음을 볼 때 당신화의 성장이 단지 당신화 자체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어 일반신본풀이를 형성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양상도 확인된 셈이다.

둘째, <세경본풀이>가 <송당계본풀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송당계본풀이>의 본래적 면모를 역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송당과 그 본풀이는 제주도의 당과 당본풀이의 祖宗으로 여겨진다. 송당의 본풀이에 따르면 父神인 소천국과 母神인 백주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18명, 딸이 28명, 손자가 378명 이어서 이들이 도내 각 마을에 퍼져 본향신이 되었다고 한다.<sup>43)</sup> 이렇듯 송당이 제주도의 당과 당신화의 조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송당이 이처럼 제주도 신당의 한 본산으로 계보화되고 유명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sup>44)</sup> 송당리는 중산간촌의 다소 큰 마을이기는 했지만 아주 큰 마을은 아니었으며, 인구도 그다지 많은 곳이 아니었다.<sup>45)</sup> 그럼에도 제주도 당의 조종이 되고 당신의 계보가 전도에 넓게 분포한 데는 그만큼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송당계본풀이>가 <세경본풀이>의 형성에 밀그림이 되었고 농경신과 목축신이라는 신직 부여 자체가 여타의 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의 독자적인 것임을 감안한다면, <송당계본풀이>의 소천국과 백주또는 단순한 당신이 아니라 본디 제주도 고유의 농경신과 목축신적 존재로 믿어지고 기능을 수행하던 신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당계본풀이>에서 모신인 백주또가 농경신적 성격이 뚜렷하고, 부신인 소천국이 수렵목축신적 성격이 뚜렷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밝혀진 바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추정하건대 송당의 부모신인 소천국과 백주또는 원래 수렵목축신과 농경신으로 기능을 하면서 아울러 마을을 차지하여

43) 현용준, 같은 글, 87면.

4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은 장주근이 제기한 바 있다(장주근, 「마을수호신의 신화」, 같은 책, 46면).

45) 장주근, 같은 글.

당신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큰굿 제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그에 적합한 일반신본풀이가 형성되면서는 목축신과 농경신에 대한 기능은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정수남과 자청비에게 넘겨주고 당신으로서의 직능만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곧 <송당계본풀이>가 제주도의 당과 당신의 조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한 마을을 관장하는 당신으로서의 권능에 기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들 신격이 지니고 있다가 일반신본풀이에 넘겨준 농경신과 목축신적 직능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 4. 마무리

본고는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인 <세경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인 <송당계본풀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세경본풀이>가 <송당계본풀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글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별개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며, 일반신본풀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하는 본원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글에서 밝힐 수 있었던 바를 요약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먼저 <세경본풀이>는 전반부는 중국의 양축설화를 소재적 원천으로 하는 것으로, 함경도무가 <문굿>, 고소설 <양산백전>, 제주민담 <자청비이야기> 등과 인물의 성격, 서사적 내용 및 전개양상이 일치하고 있어 동일한 계통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반부는 정수남이라는 인물의 설정과 자청비와의 관계, 자청비의 남편탐색담, 자청비의 천상무용담, 정수남을 살리기 위한 자청비의 서천꽃밭 여행, 중세경으로 농경신이 되는 자청비와 하세경으로 목축신이 되는 정수남의 좌정담 등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동계의 여타 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게 된



다. 이렇게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는 후반부는 분명 제주도 나름의 고유한 신화적 기반을 지닌채 형성되었을텐데, 여기서 제주도 토착신화 형태인 당신본풀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세경본풀이>의 후반부는 실상 <송당계본풀이>와 많은 부분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후반부의 첫머리에서는 정수남이 갑자기 등장하여 자청비를 겁간하려 하는 등 자청비의 배우자적 성격을 지닌채 새로운 사건의 축이 마련되는데, 여기서의 정수남과 자청비의 성격 및 관계는 <송당계본풀이>의 소천국과 백주또에 그대로 대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일치되는 양상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남신의 성격이 다 함께 대식성과 육식성을 지닌 수렵목축신적 존재이다.

둘째, 여신의 성격은 모두 농경풍요신적 성격이 뚜렷한 존재이다.

셋째, 육식성과 목축신적 성격의 남신과 농경풍요신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아울러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이 자청비를 겁간하려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결합을 보이는데 <송당계본풀이>에서는 식성의 갈등 때문에 소천국은 백주또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당하고 있어, 여신이 남신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결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넷째, 농경신이 목축신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는 신격의 위계관념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런 정수남과 자청비의 사건 이후에는 자청비가 남편을 찾는 친상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부모로부터의 버림-이계여행을 통한 배우자 획득-변란을 막는 무용담-귀환하여 신격으로 좌정”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송당계본풀이>에서 子神이 추방되어 쫓겨나게 되는 여행담과 동일한 구조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子神의 여행이 아닌 자청비의 여행담이 나타나는 것은 전반부가 이미 문도령과 자청비의 사랑이라는 외래적 원천을 받아들여 채워진 부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청비가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 여행을 떠

나는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마지막의 신직의 부여 부분에서도 <세경본풀이>와 <송당계본풀이>는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송당계본풀이>에서 子神이 귀환해 당신으로 좌정 하는데 있어 그 부모가 등장하여 신격이 되듯이 <세경본풀이>에서도 정수남이 다시금 등장해 신직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신화는 전체적으로 신의 성격이나 전개양상, 내재된 의식 등 다각도에서 합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경본풀이>의 짜임새가 <송당계본풀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 -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의 관계 // 자청비의 천상여행담 및 무용담 - 자신의 용궁계 여행과 강남천자국 무용담 // 정수남과 함께 신격의 좌정 - 부모신과 함께 신격으로 좌정으로 대응되고 있어 <세경본풀이>의 후반부는 <송당계본풀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반신본풀이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당신의 조종으로 여겨지는 당신화가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이런 밀접한 관련성은 분명 <세경본풀이>가 <송당계본풀이>를 기반으로 했기에 가능한 양상이다. 곧 <세경본풀이>는 이런 <송당계본풀이>를 토대로 외래적 소재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나름의 일반신본풀이를 창출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세경본풀이>의 동계 여타 자료와는 다른 독자적 면모가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이것은 당신본풀이가 제주도 무속서사시의 근간으로서 일반신본풀이를 형성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경본풀이>의 근원이 당신본풀이에 있다는 것은 분명 제주도 무속서사시의 생성 및 전개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양상이 일반신본풀이 전체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는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를 폭넓게 검토하고 관련지어 본 뒤 결론을 내릴 문제이다.